

계란 이어 농·축산물 가격 '들썩'

1년 전보다 8.5% 급등... 채감물가 5년 만에 최고치

가계 주머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가 심상치 않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따른 '계란 대란' 여파가 반영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뛰었고 유가 반등에 따라 석유류 가격이 오른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민들의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지수는 4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올랐다. 이는 2012년 10월(2.1%)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률이다.

지난해 5월부터 0%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는 9월 이후 4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이어가다 지난달 경총 뛰어 2%대로 올라섰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계란이다. AI 때문에 빚어진 계란 수급난이 지난달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면서 계란 값이 크게 뛰었다. 지난달 계란 값은 1년 전보다 61.9% 뛰었다.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8.7%) 상승 폭보다 7배나 확대된 것이다.

계란 이외에도 무(113.0%), 배추(78.8%), 당근(125.3%)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들썩었다.

이 때문에 전체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8.5% 올라 전체 물가를

0.67%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국제유가 반등 여파로 그간 물가 안정세에 기여했던 석유류도 1년 전보다 8.4% 뛰어 전체 물가를 오히려 0.38%포인트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

석유류 가격이 뛰면서 교통, 공업제품 등 관련 물가도 줄줄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교통은 3.8% 오르면서 2012년 6월 4.2% 이후 인상 폭이 가장 컸고 지난해 1% 이하 상승률을 보이던 공업제품도 1.6%나 뛰었다.

서비스 분야의 물가는 2.2% 상승해(78.8%), 당근(125.3%)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들썩었다.

이 때문에 전체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8.5% 올라 전체 물가를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5%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1.7% 올랐다.

식품 등을 포함한 생활물가는 2.4% 상승했다. 이는 2012년 2월 2.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특히 식품이 4.4%나 오르면서 생활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생활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채감 물가 상승률도 높아진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상승률은 5.3%로 2012년 4월(5.3%)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소비자들이 자주 소비하는 먹는 채소, 과일 등의 물가인 신선식품지수는 12.0%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내리 두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신선채소는 17.8% 오르면서 신선식품 상승률을 이끌었다.

/인재용 기자



전북조달청장, 도내 벤처기업 제조 현장 방문

임중식 전북조달청장은 지난 10일 도내 벤처나라 등록 업체인 (주)수테크 놀로지를 방문해 '변기에어커튼'의 제조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벤처나라 제품을 공공기관에 홍보 및 판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청장은 "벤처나라 등록 제품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엄선하여 등록된 제품으로 미래 성장산업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적극 구매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민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서리나래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전주점 6층 이벤트홀에서는 '서리나래' 팝업스토어를 오는 3월 9일까지 진행한다.

'서리나래'는 한복에서 모티브를 얻은 영계주일 브랜드이며 잊혀져 가는 우리의 한복을 일상속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며 탄생했다. 길어진 저리, 짧아진 치마 등 생활 한복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과거와 현재를 동시대적으로 연결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

롯데백화점 김현희 파트리더는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한복을 모티브로한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이는 이번 팝업스토어 행사는 고객들의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농협 도농상생교류팀, 경남 악양농협 등 방문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주농협은 지난 8~9일 임인규 조합장과 임원, 그리고 직원대표들로 구성된 도농상생교류팀을 꾸려 경남 악양농협과 새남해농협을 방문했다.

도시형 농협인 전주농협은 경남 악양과 남해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산한 품질좋은 우수농산물을 하나로 마트와 연계해 도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고, 도시민은 우리 농산물 애용

으로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해 주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상생발전해 나갈 것을 협약했다.

현재 전주농협은 중화산동과 평화동에 로컬푸드 2개점을 개소해 우수농산물 판매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송천동 예코시티내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대규모 농산물 판매장을 계획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JB금융그룹, 연간 순이익 2019억원 달성

JB금융그룹은 2016년도 연간 당기순이익(공시기준)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한 2,019억원을 시현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도 실적의 주요 특징으로는 견조한 대출성장률과 함께 핵심 이익 지속적 증가와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및 안전성을 유지했으며, 적극적인 판테크 대응 사업 및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잠재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은행은 지역 밀착 경영을 기반으로 수익성 중심 성장과 비이자 수익 증대, 자산건전성 제고 등을 적극 시행해 지역경기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0.6% 증가한 568억원(PPCB 32억원의 연

전북은행, 수익성 중심 성장 전년 대비 10.6% 증가

간 순이익을 달성했다.

광주은행은 수도권으로의 영업 네트워크 확대와 서민금융 강화 등 적극적인 영업력 확대와 경영 효율화를 병행한 결과 전년 대비 78.7% 늘어난 1,034억원을 시현했다.

특히 자동차전문여전사인 JB우리캐피탈은 안정적인 자산성장률과 수익률 대변화로 연간 순이익 기준 7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5% 증가한 수치(701억원)로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이다.

JB자산운용은 운용자산이 전년도 1조 수준에서 5조원으로 대폭 확대됨과 동시에 종합자산운용사로

서의 토대를 적극적으로 갖추어나가면서 수익 또한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은행의 핵심이익 지표인 그룹(은행) 연간 NIM(순이자마진)은 전년 대비 0.05%p 하락한 2.22%(전북은행 2.29%, 광주은행 2.16%)를 나타냈다.

건전성지표인 그룹 고정이자여신 비율과 연체비율이 전년 대비 각각 0.11%p, 0.15%p 하락한 1.16%와 1.04%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대손비용률(Credit Cost) 역시 영업이익의 증가와 자산건전성 개선 영향으로 전년 대비 0.23%p 하락한 0.56%(전북은행 0.73%, 광주은행

0.22%)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대손준비금 보통주자본으로의 인정과 위험가중자산(RWA)의 적극적인 관리로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7.94%(잠정)로 전년 대비 0.54%p나 상승했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내외의 불확실한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시행과 리스크를 고려한 수익성 중심(RoRWA)의 성장을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올해는 안정적인 이익 창출은 물론 본격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효과로 보다 가시적인 보통주자본비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스마트팜 종합자금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3일부터 첨단농법 확산을 통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스마트팜 영농에 특화된 농업정책자금인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농협은행을 통해 출시한다.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시설 구입 및 신축, 기존 시설물의 증·개축, 운전자금 용도로 농가당 최대 50억원까지

가능하며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설자금은 연 1%, 운전자금은 연 1.5%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6개월 주기 변동금리(2월 기준 1.09%)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대출능력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영농안정기까지 스마트팜에 특화된 농협 의전설치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받는

다. 전문컨설턴트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농가환경에 최적화된 농장이 신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대출지원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여 생산성 증대와 원가 절감방법을 지도해준다.

최근 국내 한 연구기관이 스마트팜을 도입한 226개 농가의 경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팜 도입 후 농산물 생산량은 27.9% 증대되고, 고용노동비는 15.9% 감소, 1인당 생산량은

40.4% 증대되는 경영개선 효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농협은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팜 도입 확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을 개발하게 됐다.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영농교육 수료 등 정부가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가까운 농협은행을 방문해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신용보증기금, 창업지원 메카 선언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9일 조지개편 후 처음으로 창업과 4차산업을 대비한 제1차 전국 본부점장회의를 열어 '창업지원 메카'를 선언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보는 우선 전국 8개 지역에 창업

전담 조직인 '창업성장지원'을 설치하고 창업보육시설을 운영해 창업절차? 창업보육(컨설팅)-금융지원(신용보증, 투자, 신용보험)-육성(마케팅, 네트워킹) 등 창업에서부터 성장까지 모든 과정을 막힘없이 One Stop 지원하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